

참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요나 -복음으로 여는 요나서-

요나 1:1-3, 누가복음 11:32

정윤돈 목사님

* **욘1:1-3** 여호와의 말씀이 아밧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 **눅11:3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인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전 인류가 6 가지, 12 가지, 오만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치유를 받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미션과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요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요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전도자로 쓰실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셨다. 우리가 램네프도 마찬가지이다. 못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끝까지 인도해주시길 믿음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고 작은 기도를 시작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아 이루신다고 하셨다. 조금씩 할 필요가 없다. 조금씩 하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것이다. 간섭하지 말고 자녀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라.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 가면 생고생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 목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다. 이분들이 훌륭하고 말이 옳아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응답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램네프들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 자체로 모든 것을 다한 것이다. 감사하고 효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가장 감사해야 한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제비에 뿔뿔히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 우리의 신앙도 초급, 중급, 고급, 초특급이 있다. 믿음으로 어느 수준으로 가면 하나님이 미리 응

답해 주신다. 초급, 중급이라면 응답이 오면 좋고 안 오면 빠진다. 그러나 우리가 고급, 초특급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다. 초특급으로 가면 하나님도 놀라셔서 미리 응답을 주신다. 아무 갈등이 없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하기 이전에 응답을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드린다. 요나는 겨우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부끄럽게 갈등하다가 구원을 믿으면 초급신앙이다. 오직복음은 그리스도로 결론 낸 것이다. 오직을 해야지 전도할 수 있고 제자를 키울 수 있다. 완전복음을 해야지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하늘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겨우 천국, 왕초보 신앙생활해서는 되겠는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나는 평생 적극적인 앓수르 수도인 니느웨를 중심으로 세계선교를 전하다가 그 곳에서 사망했다. 앓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히고 전쟁을 했던 나라였다. ‘원수 적국인데 복음을 전하라니, 나는 그런 것 못해.’ 하면서 도망간 것이다. 요나 선지자는 처음에는 앓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생 니느웨를 중심으로 선교를 전하다가 사망하였던 것이다. 당시 니느웨는 세계 237 나라의 민족들이 다 모이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1. 첫 번째로 요나서 전체의 내용인 1 장부터 4 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나서 1 장 2 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 즉, 선교를 명령한 것이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캠프,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열어 주시는 것이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앓수르가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가서 전도시키고 회개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1 장 3 절을 보겠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옹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돈 들여가면서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하지 말고 고생하며 예수를 믿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직접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파손될 정도로 위험하게 되었다. 이에 사공들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선장은 요나에게 말하기를 ‘자는 자여 어찌함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하고 말했다. 선지자인데 이방사람이 와서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사람들보다 못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다. 풍랑이 그치지 않자 누구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게 되었다. 이때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었다. 요나는 자초지종을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명 살리려고 보내신 자인데, 도망갔다.’ 하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던지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풍랑이 그치지 않자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져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1 장 17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라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삼 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이 물고기 사건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2) 다음으로 2 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감사와 예배와 구원의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였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이렇게 안 할게요.’ 이 정도가 될 정도로 신앙을 심어줘야 한다. 어떤 사람은 꾸지람을 했을 때 더 나쁜 길로 간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고 회개해야 한다. 작은 문제 속에서 깨닫고 복음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요나서 2 장 9 절에서 10 절을 보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한 기도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배속에서 오히려 감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제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내가 니느웨를 구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한 것이다.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실 줄을 믿기를 바란다. 요나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예배와 선교를 깨닫게 되었다. 이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 주셔서 다시 참된 선교의 절대망대로 사용해 주셨다.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램넌트들이 주역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끌려간다. 가정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망대가 필요하고, 학교에서 친구들을 살리는 망대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망대가 되면 나중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있다. 램넌트들이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영향을 줘야 한다. 쉬운 전도는 학교전도, 노방전도이다. 어려운 전도는 가정, 가족전도, 직장에서의 전도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램넌트들이 다 직장에서 전도했다. 가장 쉬운 것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전도를 하겠는가. 그래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 램넌트들이 그때부터 생명을 살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3) 다음으로 요나서 3 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성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요나서 3 장 3 절에서 10 절을 보겠다. “요나가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3 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거창하게 기도하다가 나오니까 바로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만 걸은 것이다.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백성이 회개했다. 하루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넓은 성의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회개를 받아주신 것이다. 4 장 1 절에 보면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빠졌다. 그러면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멸망하게 하시지 않을까 구경을 갔다. 너무 해가 뜨거운데 하나님이 박영쿨을 통해서 해를 가려주셨다.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에 녁쿨을 없애시니까 또 화를 냈다. ‘내가 박영쿨 하루 있다고 귀하게 생각하는데 12 만 명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고 요나서가 끝난다.

(4) 마지막으로 4 장은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꾸지람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서는 요나가 계속해서 선교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처음에 보여드렸던 요나의 무덤이 지금까지 이라크의 제 2의 도시 모술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요나는 평생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 두 번째로는 요나서를 통하여 알려주신 절대선교의 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원수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고 온 나라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선교이다. 선교가 아니면 안 된다. 앗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같은 나라였지만 선지자 요나에게 선교의 명령을 하셨다.

(2)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교의 절대망대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즉,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 장 39 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3)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조금만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을 237 나라와 5 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절대과수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이다. 즉, 대단한 사람들만이 선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나는 사공들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 요나는 변덕쟁이였고, 생명에 대한 사랑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복음과 예배를 조금이나마 사모하고 있는 요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사용하여 주셨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4) 마지막으로 선교를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과 램넌트들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나의 선교지를 발견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 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참된 선교란, 사탄의 망대 역할을 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불신자상태에 빠져서 사탄의 망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237 나라, 5 천 종족의 현장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24 시간 참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강단메시지를 목상해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아무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Nobody, Nothing 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오직 강단메시지에 조금만 순종하고 부족한다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Everybody 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램넌트들의 하늘로부터 오는 헤브리 달란트를 찾아주어야 한다. 램넌트들과 함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 속에서 후대들이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선지자 요나처럼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뿐만 아니라 237 나라, 5 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미션의 메시지, 새로운 깨달음의 복음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요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등하고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